

대 중 화 문 고  
중 한 대 역

#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 文心雕龙 문심조룡

II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延边人民出版社  
연변인민출판사

大中华文库

汉韩对照

대중화문고

중한대역

# 文心雕龙

## 문심조룡

### Ⅱ



(南朝) 刘勰 著

周振甫 今译

金宽雄·金晶银 韩译

(남조) 류협 저

주진보 금역

김관웅·김정은 한역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외국어교육연구출판사

延边人民出版社

연변인민출판사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文心雕龙: 汉韩对照 / (南朝) 刘勰 著; 周振甫 今译;  
金宽雄、金晶银 韩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4  
(大中华文库)

ISBN 978-7-80698-922-7

I. 文… II. ①刘… ②周… ③金… ④金… III. ①韩语-  
汉语-对照读物 ②文学理论-中国-南朝时代 IV.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060648号

**策 划 编 辑:** 朴 宇

**汉文责任编辑:** 雷 航

**韩文责任编辑:** 金应俊、赵东寅

**韩文责任校对:** 崔山玉

大中华文库

**文心雕龙**

(南朝) 刘勰 著

周振甫 今译

金宽雄、金晶银 韩译

**出版发行者:**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中国北京市西三环北路19号) 邮政编码: 100089

延边人民出版社(中国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邮政编码: 133000

**印制者:**

深圳市佳信达印务有限公司

开本: 960×640 1/16(精装) 印张: 56 印数: 1500

2007年第1版第1次印刷

(汉韩)

ISBN 978-7-80698-922-7

값 27,000원 (전2권)

---

**版权所有 盗版必究**

《文心雕龙》是中国文学批评史上的第一部鸿篇巨制，对文学起源、文体类别、神思、风格、修辞、鉴赏、作家人品、文学与社会变迁等一系列重大问题进行了系统论述。作者刘勰的文学观，以儒家为主，兼容道家和佛家思想。他对人物和作品的评点，见解精辟，开中国文学批评史之先河，对后世影响深远。作品风格刚健、富有诗意。

『문심조룡』은 중국문학 비평사에서 첫 장편 걸작이다. 문학의 기원, 문체의 유별, 신사(神思), 풍격, 수사, 감상, 작가의 인품, 문학과 사회의 변천 등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였다. 저자 유협의 문학관은 유가를 위주로 하면서 도가와 불가를 겸하여 융합하였다. 인물과 작품에 대한 평가와 견해가 깊고 예리하였으며 중국문학 비평사에서 선구자가 되어 후세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작품은 풍격이 강인하고 시의가 아주 풍부하다.

# 大中华文库(汉韩对照) 书目

대중화문고(중한대역) 서목

(\* 이미 출판된 서목)

|             |          |
|-------------|----------|
| 《老子》 *      | 《封神演义》   |
| 노자          | 봉신연의     |
| 《搜神记》 *     | 《儿女英雄传》  |
| 수신기         | 아녀영웅전    |
| 《文心雕龙》 *    | 《镜花缘》    |
| 문심조룡        | 경화연      |
| 《儒林外史》      | 《老残游记》   |
| 유림외사        | 노잔유기     |
| 《周易》        | 《初刻拍案惊奇》 |
| 주역          | 초각박안경기   |
| 《庄子》        | 《二刻拍案惊奇》 |
| 장자          | 이각박안경기   |
| 《论语》        | 《聊斋志异》   |
| 논어          | 요재지이     |
| 《孟子》        | 《楚辞》     |
| 맹자          | 초사       |
| 《墨子》        | 《陶渊明集》   |
| 묵자          | 도연명집     |
| 《管子》        | 《西厢记》    |
| 관자          | 서상기      |
| 《列子》        | 《牡丹亭》    |
| 열자          | 목단정      |
| 《荀子》        | 《长生殿》    |
| 순자          | 장생전      |
| 《商君书》       | 《关汉卿杂剧选》 |
| 상군서         | 관한경잡극선   |
| 《韩非子》       | 《邯郸记》    |
| 한비자         | 한단기      |
| 《吕氏春秋》      | 《尚书》     |
| 여씨춘추        | 상서       |
| 《礼记》        | 《史记》     |
| 예기          | 사기       |
| 《坛经》        | 《黄帝内经》   |
| 단경          | 황제내경     |
| 《菜根谭》       | 《本草纲目》   |
| 채근담         | 본초강목     |
| 《颜氏家训》      | 《九章算术》   |
| 안씨가훈        | 구장산술     |
| 《孙子兵法·孙臆兵法》 | 《四元玉鉴》   |
| 손자병법·손빈병법   | 사원옥감     |
| 《吴子·尉繚子》    | 《汉乐府》    |
| 오자·위료자      | 한락부      |
| 《三国演义》      | 《抱朴子》    |
| 삼국연의        | 포박자      |
| 《水浒传》       | 《汉书》     |
| 수호전         | 한서       |
| 《西游记》       | 《六韬》     |
| 서유기         | 육도       |
| 《红楼梦》       | 《李卫公问对》  |
| 홍루몽         | 이위공문대    |

## 目 錄

|        |     |
|--------|-----|
| 神思第二十六 | 374 |
| 體性第二十七 | 388 |
| 風骨第二十八 | 398 |
| 通變第二十九 | 408 |
| 定勢第三十  | 420 |
| 情采第三十一 | 436 |
| 熔裁第三十二 | 452 |
| 聲律第三十三 | 462 |
| 章句第三十四 | 474 |
| 麗辭第三十五 | 488 |
| 比興第三十六 | 500 |
| 誇飾第三十七 | 510 |
| 事類第三十八 | 522 |
| 練字第三十九 | 536 |
| 隱秀第四十  | 550 |



## 차 례

|             |     |
|-------------|-----|
| 제26장 신사(神思) | 375 |
| 제27장 체성(體性) | 389 |
| 제28장 풍골(風骨) | 399 |
| 제29장 통변(通變) | 409 |
| 제30장 정세(定勢) | 421 |
| 제31장 정채(情采) | 437 |
| 제32장 용재(熔裁) | 453 |
| 제33장 성률(聲律) | 463 |
| 제34장 장구(章句) | 475 |
| 제35장 여사(麗辭) | 489 |
| 제36장 비흥(比興) | 501 |
| 제37장 과식(夸飾) | 511 |
| 제38장 사류(事類) | 523 |
| 제39장 연자(練字) | 537 |
| 제40장 은수(隱秀) | 551 |



|               |     |
|---------------|-----|
| 指瑕第四十一        | 566 |
| 養氣第四十二        | 584 |
| 附會第四十三        | 598 |
| 總術第四十四        | 610 |
| 時序第四十五        | 622 |
| 物色第四十六        | 648 |
| 才略第四十七        | 660 |
| 知音第四十八        | 684 |
| 程器第四十九        | 698 |
| 序志第五十         | 710 |
| 注釋            | 723 |
| 附錄 I 中國歷史年代簡表 | 749 |
| 附錄 II 人名錄     | 751 |
| 參考文獻          | 767 |
| 譯者簡介          | 773 |



제41장 지하(指瑕) 567

제42장 양기(養氣) 585

제43장 부회(附會) 599

제44장 총술(總術) 611

제45장 시서(時序) 623

제46장 물색(物色) 649

제47장 재략(才略) 661

제48장 지음(知音) 685

제49장 정기(程器) 699

제50장 서지(序志) 711

주석(注釋) 723

부록(附錄) I 중국역사년대간표 749

부록(附錄) II 인명록 751

참고문헌(參考文獻) 767

역자소개 773



## 神思第二十六

### 【原文】

26.1 古人云：“形在江海之上，心存魏闕之下。”神思之謂也。文之思也，其神遠矣。故寂然凝慮，思接千載；悄焉動容，視通萬里；吟咏之間，吐納珠玉之聲；眉睫之前，捲舒風雲之色；其思理之致乎？故思理爲妙，神與物游。神居胸臆，而志氣統其關鍵；物沿耳目，而辭令管其樞機。樞機方通，則物無隱貌；關鍵將塞，則神有遁心。

### 【今译】

古人说：“身子住在江海边上，心思却想到朝廷里去。”这是想像的说法。文章的构思，它的想像飞翔得太遥远了。所以默默地聚精会神去思考，那念头就可以接触到千年以上；悄悄地改变了脸部表情，那视线好像看到了万里以外；在吟诵中间，像发出了珠圆玉润的声音；在凝想中间，眼前就呈现出风云变幻的景象：这些不都是构思所造成的么？所以构思的奇妙，使得精神能和外物相交接。精神由内心来主宰，意志和体气掌握着它活动的机关；外物靠耳目来接触，语言主管它的表达机构。要是表达机构很灵活，那么事物的形貌就可以描绘出来；要是这个活动的机关受到阻碍，就精神涣散了。

## 제26장 신사(神思)

26.1 옛사람들이 “몸은 강호에 있지만 마음은 궁궐 안에 머문다”라는 말을 했다.<sup>1</sup> 이것은 상상을 두고 하는 말인데 바로 내가 신사(神思)로써 뜻하고자 하는 바다.<sup>2</sup> 문장의 구상에 몰두해 있는 사람의 상상은 머나먼 고장으로 날아다니게 된다. 깊은 생각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얼굴빛을 조금만 바꿔도 그의 눈은 마치도 만리 밖이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시문을 읊조리는 중에 주옥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조용한 명상 속에서는 홀연 정세가 급박하게 돌변하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상이 초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구상의 기묘함은 정신으로 하여금 외계의 사물 및 그 현상들과 서로 접촉하게 하는 것이다.

정신은 마음이 주재하고 의지와 인체의 기(氣)가 정신활동의 기관(機關)을 장악하고 있다. 외계의 사물 및 그 현상은 눈과 귀로 접촉하고 언어가 그것의 표달(表達)기구를 주로 관장하고 있다. 표달(表達)기구가 아주 민첩하면 외계의 사물 및 그 현상은 묘사해 낼 수 있는 것이고, 이 활동의 기관이 저애를 받게 된다면 정신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 【原文】

26.2 是以陶鈎文思，貴在虛靜，疏淪五藏，澡雪精神。積學以儲寶，酌理以富才，研閱以窮照，馴致以懌辭，然後使元解之宰，尋聲律而定墨，獨照之匠，窺意象而運斤，此蓋馭文之首術，謀篇之大端。

### 【今译】

因此酝酿文思，着重在虚心和宁静，清除心里的成见，使精神纯净。积累学识来储藏珍宝，明辨事理来丰富才学，研究阅历来进行彻底的观察，顺着文思去引出美好的文辞；然后使深通妙道的心灵，按照声律来安排文辞，正像有独特见解的工匠，凭着意象来进行创作。这是驾驭文思的首要方法，安排篇章的重要开端。

26.2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사색을 잉태함에 있어서 그 요체(要體)는 허심함과 조용함에 있으며 마음속의 선입관을 깨끗이 쓸어내는데 있다. 바로 이렇게 해야만 정신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식을 쌓음으로써 진귀한 보물들을 저장하고, 사리를 분명히 가리는 것으로 재능과 학식을 풍부히 하고, 작가의 경력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관찰을 진행하고, 문학적 사색을 따라 아름다운 문학적 언어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신묘한 도(道)와 깊게 통한 심령(心靈)으로 하여금 성률(聲律)에 맞춰 문학적 언어를 안배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도 남다른 식견이 있는 장인바치가 심상(意象)에 의존하여 창작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문학적 사색을 구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작품의 구성에서의 중요한 발단이다.

# 【原文】

26.3 夫神思方運，萬塗競萌，規矩虛位，刻鏤無形。登山則情滿于山，觀海則意溢于海，我才之多少，將與風雲而并驅矣。方其搦翰，氣倍辭前，暨乎篇成，半折心始。何則？意翻空而易奇，言徵實而難巧也。是以意授于思，言授于意，密則無際，疏則千里。或理在方寸而求之域表，或義在咫尺而思隔山河。是以秉心養術，無務苦慮；含章司契，不必勞情也。

# 【今译】

想像开始活动，各种各样的念头纷纷涌现，要在没有形成的文思中孕育内容，要在没有定形的文思中刻镂形象。一到登山，情思里充满了山上的景色；一到观海，意想中便腾涌起海上的风光。要问我的才力有多少，好像将要同风云一起奔驰而无法计算了。刚拿起笔，比起措辞时气势要旺盛一倍，等到写成了，同开始想的已经打了个对折。为什么呢？文思凭空想像，容易设想得奇特；语言却比较实在，难以运用得巧妙。这是因为思想化为文思，文思化为语言，贴切时像天衣无缝，疏漏时便相差千里。有的道理就在自己心里，却到国外去搜寻；有的意思就在眼前，却又像远隔山河。因此用心训练思想的方法，不在于凭空苦想，要求体会外物的美好，不必要劳苦自己的心情。

26.3 상상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오만가지 생각들이 분분히 떠오르게 되므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문학적 사색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잉태하게 되며, 아직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문학적 사색 가운데서 어떤 형상을 새기고 파게 되는 것이다. 산행을 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는 그 산의 경치로 차고 넘치게 되며, 또한 바다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생각 속에는 흔히 바다의 경관이 떠오를 것이다. 나의 재주가 얼마나 대단한가 묻는다면 마치고 바람과 함께 질주하려고 하는 것 같기에 가늠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방금 붓을 잡는 순간에는 글 쓰는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을 궁리하고 있는 때보다 그 기세가 배나 더 높다. 그러나 작품을 다 써놓고 보면 흔히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의 절반밖에는 표현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된다. 왜 이런가? 그것은 문학적 구상은 흔히 상상에 의존하기에 아주 쉽게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언어는 비교적 실재적이어서 교묘하게 구사하기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사상(思想)에서 문학적 사색이 생겨나고, 그 문학적 사색으로부터 언어가 형태를 부여받는 것이긴 하지만, 사상과 문학적 사색 그리고 언어가 하나처럼 빈틈 없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루한 경우에는 천리보다 더 버성겨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치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내재해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뜻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산 너머, 강 너머 머나먼 곳에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알심 들여 사상을 훈련하는 방법은 방구석에 들어앉아 무턱대고 명상에만 잠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외재적 사물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터득하고자 할 일이지 자기의 심정만 고달프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 【原文】

26.4 人之禀才，迟速异分，文之制体，大小殊功。相如含笔而腐毫，扬雄辍翰而惊梦，桓谭疾感于苦思，王充气竭于思虑，张衡研京以十年，左思练都以一纪：虽有巨文，亦思之缓也。淮南崇朝而赋《骚》，枚皋应诏而成赋，子建援牍如口诵，仲宣举笔似宿构，阮瑀据案而制书，祢衡当食而草奏：虽有短篇，亦思之速也。

## 【今译】

就各人具有的创作才能说，下笔有快慢，天分不同；就作品的规划体制说，规模有大小，功力各异。司马相如口吮着笔直到笔毛腐烂文章才写成，扬雄用心过度放下笔做着恶梦，桓谭由于苦苦思索因此害病，王充因用心过度气力衰耗，张衡用十年工夫研讨《两京赋》，左思用十二年时间著作《三都赋》：虽说是篇幅巨大，也由于文思的迟缓。淮南王刘安在一个早上就写成《离骚传》，枚皋一接到诏书就写成了赋，曹植铺开纸创作像写背诵的文章，王粲拿起笔来创作像写早已做好的文章，阮瑀靠着马鞍上作文书，祢衡对着酒席起草奏章：虽说都是短篇，也由于文思的敏捷。

26.4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창작의 재능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어떤 이는 글을 빨리 쓰고 어떤 이는 글을 느리게 쓰는데 이는 천분(天分)이 다른 까닭이다. 그리고 작품의 기획과 체제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의 구별이 있고, 또 글을 쓰는데 들인 공력도 사람마다 각이할 수 있다. 사마상여(司馬相如)는 자신의 붓끝을 입으로 빨아 그것이 삭아서 닳아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글이 완성되었고, 양웅(揚雄)은 너무 골몰한 나머지 붓을 놓자마자 악몽에 시달릴 정도였으며, 환담(桓譚)은 생각에 골몰하느라 병이 들었고, 왕충(王充)은 글쓰기에 너무 열중하다 못해 자신의 기(氣)를 소진했고, 장형(張衡)은 「이경부(二京賦)」를 짓기 위하여 10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좌사(左思)는 「삼도부(三都賦)」를 짓느라고 12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비록 편쪽은 방대하다지만 역시 문학적 사색이 무디고 느린 까닭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은 하루 아침나절에 「이소전(離騷傳)」을 완성했고, 매고(枚臯)는 조서를 받자마다 즉석에서 부(賦)를 지어냈고, 조식(曹植)은 종이두루마리를 펼치면서 글을 짓기 시작하면 마치 사전에 머릿속에 익혀 두었던 시를 읊조리듯이 줄줄 써내려갔고, 왕찬(王粲)은 붓을 잡기만 하면 마치 이미 기성(既成) 수작(秀作)을 베끼듯이 붓대를 놀렸고, 원우(阮瑀)는 말안장에 기대어 문서를 작성했고, 니형은 술상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초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비록 상기한 작품들은 모두 편쪽이 짝기는 하지만 모두 문학적 사색이 민첩하였던 까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